

옥내용 절연전선 단락사고 두고 '법정 공방'

시공사 "전선 불량" VS 유통사 "시공 하자"

전기공사업체와 기자재 유통업체가 단락사고가 발생한 옥내용 절연전선(HIV)의 불량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기공사기업 류동전력(대표 류동희)과 전기기자재 유통업체 대화이엔아이(대표 박종선)는 현장에서 발생한 전선 단락사고의 원인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의 변론이 다음달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대화이엔아이(이하 대화)가 류동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7100여만원의 물품대금 지급 소송과 류동전력의 대금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류동전력은 대화이엔아이에서 구매 시공 한 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HIV)에서 단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해당 전선의 교체 비용을 결재예정인 물품대금 등을 통해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화이엔아이는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물품대금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류동전력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내며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전선 불량이나 시공 하자 등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나에 달려있다.

시공사인 류동전력은 대화이엔아이로부터 구매한 전선으로 시공한 150여군데 현장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

까지 이를 교체 시공하는데 8000여만원의 비용을 소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여전히 단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황상 불량으로 판단되는 전선을 납품한 대화이엔아이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화이엔아이는 불량 전선이 아닌, 시공 상의 하자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 다음달 19일 변론기일까지 시험인증기관이나 전문가 감정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고 전선이 불량인지 아닌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김병일 기자 kube@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IIoT 통한 고객 디지털 혁신 지원 전략 공개

글로벌 공정 최적화·자동화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코리아(대표 김경목)가 설계부터 건설, 운전, 유지보수 등 자산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코리아는 8일 서울 구로구 셰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이노베이션 서밋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코리아

2017'을 개최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 강화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 기업의 디지털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하고, 고객의 성공 사례를 통해 공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Digitize)와 변신(Transform), 강화(Empower)를 통해 산업의 디지털 미래를 강화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이 디지털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이강주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태지역 소프트웨어 영업총괄 전무와 토비아스 쉐레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디자

인, 시뮬레이션, 최적화 사업부대표가 기초연설을 진행했다.

이강주 전무는 "4차 산업혁명과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등은 새로운 게 아닌, 기존 개념이 진화해 산업을 바꾸는 힘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를 통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할 수 있다"며 "고객의 핵심 가치를 유지한 채 디지털화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토비아스 쉐레 대표는 "슈나이더는 센서와 데이터 수집·분석, 이를 통한 의사결정, 가치창출까지 업계 최대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며 "고객 플랫폼 수명주기를 최적화하는 수평·수직 솔루션을 모두 갖춰,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더 커피니 / GH산전 /

'C타입 주택용 차단기 개발, 올 연말 KS획득 목표'

마그네틱 덧대는 동조방식 적용 기존 제품과 차별화

품질신뢰도 우수, 제조원가 저렴해 출시 뒤 돌풍 기대

2014년 말에 설립된 차단기 신생업체가 C타입의 주택용 차단기를 개발, 안전인증(KO)을 획득해 화제다. 이 업체는 3개월 뒤인 12월까지 KS규격을 획득해 본격적으로 제품 판매에 돌입하겠다는 전략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GH산전(대표 송희찬).

이 회사가 눈길을 끄는 것은 까다로운 C타입 주택용 차단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12월 고시된 저압차단기의 KS표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택용 분전반의 KS규격(KS C 8326) 미개정 등으로 적용이 미뤄지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을 개발하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다가 LH 등이 D타입, C타입 도입을 결정하면서 작년 10~11월부터 C타입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며 "안전인증이 나온 만큼 3개월 뒤인 12월까지 KS를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의 C타입 주택용 차단기는 기존 메이커의 C타입 제품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PCB 고유의 트립코일을 이용하거나 PCB와 2개의 솔레노이드 코일을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GH산전은 2개의 마그네틱 뒤에 마그네틱을 덧대는 동조방식을 적용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한 손보다 두 손을 쓰는 게 유리하듯이 두 개의 마그네틱을 사용해 원하는 순시영역을 확보한 것이다.

기계적 방식을 활용했지만 오동작이나 아크사고가 없는 등 품질신뢰성이 높고 제조원가가 싸며, 허부하 상태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기술은 '듀얼 아마추어 픽스코어 작동형 트립장치를 구비한 회로차단기'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 독점성도 인정받았다.

김기영 GH산전 전무는 "산업용 차단기의 경우 2.5kA에서 3회를 때렸던 단락류정이 KS규격 개정 이후 주택용 차단기는 1.5kA에서 9회, 500A에서 18회로 강화됐다"면서 "GH산전의 듀얼 마그네틱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동작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마그네틱을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PCB를 쓰는 방식보다 많이 저렴하다"면서 "앞으로 KS까지 나오면 LH 등 공공시장은 물론 민수시장에 대해서도 영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043-715-6846>

윤정일 기자 yunji@



주택법에 따른 주거시설(주택, 준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게 바로 순시트립 범위다.

순시트립 범위는 차단기가 자기정격전류의 몇 배에서 트립 되는지를 구분지어 놓은 것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제38조4항)에서는 그 범위에 따라 주택용 차단기를 B타입(3In 초과~5In 이하), C타입(5In 초과~10In 이하), D타입(10In 초과~20In 이하)으로 분류하고 있다.

차단기가 낮은 암페어에서 트립 되려면 규격화된 제품 공간 안에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D타입보다 C타입, C타입보다 B타입이 구조도 복잡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차단기 업체들은 초기에 DE타입 위주로 제품을 개발하다 LH 등에서 순시트립 범위에 따른 메인과 분기의 차단기 설치를 놓고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부랴부랴 C타입 개발에 나섰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송희찬 GH산전 대표는 "우리도 처음에 DE타입

대경기연, 일본에 변압기 설비 수출

기계설비 분야 경쟁력 입증

변압기 설비 전문업체 대경기연(대표 이주철)은 최근 일본에 건식변압기 설비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대경기연은 국내 몰드 및 건식, 유압변압기 시장에서 변압기 생산 설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납품하며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1000kVA 몰드변압기 생산 설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주철 대경기연 대표는 "이번 일본 수출은 기계설비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 개발에 매진해 온 결



대경기연이 일본에 수출한 건식변압기 생산설비.

과"라며 "앞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보강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세준 기자 21ssj@

LS전선, 중국 우시 생산법인

'LSCW' Pre-IPO로 450억 확보

LS전선은 중국 장쑤성 우시시 생산법인 LS Cable&System Wuxi(이하 LSCW)의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를 통해 약 447억원(446억6877만6972원)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LSCW의 지분 47%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에 매각됐다.


LSCW는 LS전선이 2003년 중국 우시산업단지에 설립, 전기자동차용 고전압하네스, 자동차 케이블과

알루미늄 부품, 산업기기 케이블, 그리고 대형 건물에서 전선 대신 사용되는 버스덕트(bus duct)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3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매출 1252억원, 영업이익 8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고전압 하네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확대로 2012년 3%에서 2016년 6.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LSCW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전압 하네스 분야 중국 시장 5위권에 있으며,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36th Anniversary 한국전기문화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최신 LED 기술을 특허받은 필립스 LED 산업용 등기구


HID 조명 시스템에 비해 60%까지 에너지 절약




스마트베이 85W




아이베이 140W




사무실 피라보릭등




LED 투광기



T5 BATTEN



TANGO G2



LED 램프

since 1981

JUNGKWANG

Humanism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184 정광조명산업

T. 02-763-0205 / F. 02-763-0047

구매 및 제품문의 (제작생산가능)

www.lamp21.co.kr

정광조명산업